**대림 제 4주일(2017년 12월 24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우리는 모두 성탄절에 대한 어떤 기대나 꿈을 갖고 있습니다. 막연히 어떤 특별한 선물을 기대해 보기도 하고,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뭔가 기대를 갖죠. 그런데, 성탄절에 받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절에 받는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천년 전 베들레헴의 그날 밤. 유난히 맑고 별이 아름답게 빛나던 그날 밤은, 다른 날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도 위대한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빛을 본 밤이었죠. 그날 밤은 하느님께서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온 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세상을 향해 노래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성탄 전야를 맞이했죠. 적군들과 대처하고 있던 전쟁터였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무척 조용하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조용히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젊은 병사들은 고향 집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손에는 총과 화약을 든 채, 언제든지 다시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히 한 젊은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둘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부대원들이 노래를 막 마치는데, 적군들이 있는 반대편 쪽에서도 똑같은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노래였지요.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전쟁을 다 잊어버린 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소리 높여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만큼은, 아군도 적군도 없고,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들 전쟁을 잊고 세상에 평화 주러 오신 아기 예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평화를 주러 오신 아기가 구유에 누워 평안히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주말, 세상 곳곳에서 예수 성탄을 경축하고 기념합니다. 세계 각국의 민족과 국가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제각기 자기네 문화와 자기네 언어로 이날의 기쁨과 평화를 노래합니다. 이 며칠 동안은 이 세상에는 테러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이 몇 시간 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거룩함과 행복을 기억하고, 선물을 나누고 평화와 사랑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거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피부 색에 상관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리고 지식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간에,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성탄절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구세주이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건 간에, 또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든 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십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절대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선언하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마음이 부서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과 행복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절대 혼자가 아님을, 사랑의 하느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성탄이 있었던 이후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순간만큼은 감동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인간의 꿈이 하느님의 꿈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성탄 바로 직전의 이 마지막 대림 4주일을 지내면서, 복음은 다시 마리아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대림 4주일 복음은 마리아의 잉태 예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한 16에서 17살 정도 되었을, 어리고 순진한 처녀가 하느님께 담대하고 솔직하게, 용기있게, “네”하고 대답합니다. “네,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 몇 마디의 말이, 세상에 큰 빛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인간을 위한 계획이 실현되고, 신약 성서의 위대한 약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 순진한 신앙의 응답이 참된 신앙임을 마리아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에 맞이 않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하느님의 계획이라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죠. 성질내고 따집니다. 종종, 자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언제나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평화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 안 있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갖 화려한 성탄 장식들은 다시 창고 안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흥청 망청 놀았던 파티들도 이제 곧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 그 영원한 기쁨과 평화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찼습니다. 마리아가 달이 다 차서, 아기 예수를 낳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다 걷히고, 위대한 빛으로 가득 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도, 내 삶에도 구세주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느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